

2024 02
제229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역동의 기운이 넘치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도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으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한발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대덕을 구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품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힘없이 달려 나갈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당부 드립니다.

2024년 한해는 구민 여러분과 각 가정에 더 따스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전하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2월 대덕구청장 배상

2023 대덕구 사진공모전 일반 부문 수상작
대청호 은하수 / 박우식작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2024 대덕구청 달라지는 것들
- 05 걸어서 대덕속으로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인물 인터뷰] 신상교 대전로타리클럽회장
- 08 열린의정
- 10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 11 구정소식
- 12 대덕톡톡

그리운 설맛이

강충구(시인, 수필가, 대덕문학회 회원)

잊지 않고 찾아오는
설날을 맞는다.

고향 생각에 젖어드는 마음
꿈속에서 고향 찾아 헤맨다.

아득한 유년시절
꼬까옷 차려입고
어른들 찾아 세배 드리며
세뱃돈 왕사탕 그리워진다.

그 옛날 그리운 시절
옛정이 그리워 울적한 마음
보고픈 고향친구 그리며
올해도 설날은 그렇게 찾아온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2월 5일(제 229호)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갑진년 1월이 지나고 어느덧 2월을 맞았다.
올 한해도 대덕구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2024년 달라지는 대덕구의 제도를 알아보자.



01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시행예정일 2024년 7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자에 대한 복지 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대덕구가 보훈 대상자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종전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4·19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

변경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4·19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

- 자격기준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로 등록된 자
- 지급액 : 매월 8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복지정책과(☎042-608-6763)

0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대 (시행예정일 2024년 1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를 통해 욕구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권역과 수행기관을 확대합니다.

종전

▶ 권역 및 수행기관 3개소

수행기관	인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1619
법동종합사회복지관	1270
대덕종합사회복지관	640
계	3529명

→

변경

▶ 권역 및 수행기관 5개소 확대

수행기관	인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1094
대덕사랑노인복지센터	706
법동종합사회복지관	814
중리종합사회복지관	778
대덕종합사회복지관	658
계	4100명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요보호 노인
- 문 의 : 노인장애인과(☎042-608-6773)

03 | 행복한 100세시대 만들기! 대덕형 마을돌봄사업 강화 (시행일 2024년 2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덕형 마을 돌봄’ 사업을 강화합니다.

종전

- 병원·시설에서 돌봄
- 개별 사업 중심 분절적 지원
-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

변경

-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 사람 중심의 통합 제공
- 이용자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 간 : 2024. 2. ~ 12.
- 제공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상담을 통한 서비스 연계·제공
- 문 의 : 복지정책과(☎042-608-4612)

04 |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시행일 2024년 5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소합니다.

- 위 치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층(석봉동 774번지)
- 규 모 : 260㎡ / 직매장 200㎡, 공동작업장 및 사무실 60㎡
- 개소예정일 : 2024년 5월
- 문 의 : 에너지산업과(☎042-608-6945)

05 |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및 설치 이전 새롭게 생겨요 (시행예정일 2024년 1월)

‘(舊)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덕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에서 일반가족으로 대상자를 확대,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종전

- (시설명칭)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지원사업

→

변경

- (시설명칭) 대덕구 가족센터
- (사업대상) 가족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일반, 다문화, 한부모·조부모, 맞벌이 등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 2층 * 상반기(신탄진동 773 일원) 가족센터 준공 후 이전 개소 예정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면접·전화·집단), 교육실, 교류·소통 공간 등
- 운영시간 : 09:00~18:00 / 공·휴일 휴관(* 야간 및 주말 운영은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문 의 : 가족친화과(☎042-608-6784)

06 | 대덕구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새롭게 생겨요

(시행일 2024년 6월)

읍내동 및 비래동 거주민과 인근 이용객의 주차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합니다.

- 읍내동 362-2번지 일원(대덕문화원 인근) 27면
 - 비래동 410-3번지 일원(비래사 입구) 34면
 - 비래동 409번지 일원(비래동 고인돌) 15면
- 운영기간 : 2024. 06. ~
 -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운영
 - 이용료 : 무료

07 | 대덕구 노상주차장 확대 지정 운영

새롭게 생겨요

(시행일 2024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지정 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우암로486번길 일원 (0면 → 16면)
 - 우암동로 일원 (23면 → 40면)
- 운영기간 : 2024. 01. ~
 - 운영시간 : 20:00 ~ 07:00 (시간제 주차)
 - 이용료 : 무료
 - 문 의 : 교통과(☎042-608-5292 / 5294)

08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건축물 개량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건축물 붕괴 예방을 통한 구민 생명 보호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 관내 소규모 노후(30년 이상) 건축물 점검
- 점검 후 보수·보강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건축물 관리법」 시행(2023.4.)
- 대 상 : 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민간 건축물(구조적 결함이 큰 순서대로 임의선정)
- 절 차 :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 →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 통보 → 점검결과 제공 후 개선방안 제시
- 문 의 : 건축과(☎042-608-5382)

09 | 부모급여 확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 종전

- 0세 : 월 70만원
 - 1세 : 월 35만원
-
- 변경

- 0세 : 월 100만원
 - 1세 : 월 50만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서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문 의 : 가족친화과(☎042-608-6972)

10 |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200만)의 지급 금액을 확대합니다.

- 종전

- 모든 자녀 각 200만원 지원
 - ※ 2022년 첫만남이용권 신규 도입
-
- 변경

- 첫째 : 200만원
 - 둘째 이상 : 300만원

- 지원대상 :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바우처 1회 지급)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신청 방법 :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11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에게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종전

- 자립준비 청년에게 매월 40만원 지급
-
- 변경

- 자립준비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지급일 : 매월 20일(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산정에 미산정
- 신청방법 : 수시 신청
- (방 문)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우편 및 팩스)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해외 유학(재학증명서), 군 입대(군 입영사실확인서), 질병(입원확인서 등)
- 문 의 : 가족친화과(☎042-608-6566)

“설날에 꼭 안부쳐도 됩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차례상 간소화 방안 제시

차례상을
부탁해



[사진 자료 :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이하 성균관)가 설, 추석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균관은 떡국, 나물, 구이, 김치, 술(잔), 과일 4종 등 9가지 음식을 올리면 된다고 전했다.

추석 차례상은 떡국이 송편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 종류는 특별히 정해진 것 없이 4~6가지를 편하게 놓으면 되고,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나 ‘조율이시(棗栗梨柿 : 대추, 밤, 배, 감)’는 예법을 다룬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했다.

나아가 가족과 상의해 좋아하는 것은 상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균관은 세배 인사법도 안내했다.

세배를 할 때는 먼저 공수 자세를 취한 후 몸을 굽혀 절을 하면 된다. 공수는 전통 예절에서 두 손을 배꼽 높이에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로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간다. 이후 몸을 굽혀 손을 바닥에 대고 왼쪽, 오른쪽 무릎 순으로 바닥에 닿게 한 후 머리를 숙여 세배를 한다.

덕담은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하고, 이후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 예법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

차례는 준비보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성균관.

이번 설에는 우리도 마음을 중요히 생각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보자.

걸어서 대덕속으로

소대헌·호연재 고택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 70(송촌동 198-4)에 위치한 소대헌·호연재 고택은 17세기 중엽 지어진 목조건물이다. 동춘당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가 분가해 거주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1대손까지 살아오고 있다.

특히, 송병하의 며느리이자 17세기 말~18세기 초 대표 여류 문인인 호연재 김씨가 살았던 곳으로 지난 2016년 8월26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안채, 가묘 등 총 4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큰사랑채에는 넓은 대청과 온돌방을 배치함과 동시에 방 사이에는 미닫이문을 달았다.

안채 앞에 있는 작은사랑채는 오른쪽 끝에 툇마루를 한 단 높게 배치해 운치를 살렸으며, 안채는 작은사랑채의 왼쪽에 나 있는 중문을 지나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채의 뒤로 돌아가면 구릉 위에 가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사랑채가 2동이나 있어 사랑채의 기능이 확대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가옥은 개방적인 배치를 하고 있어 조선 중기 대전지역 양반 가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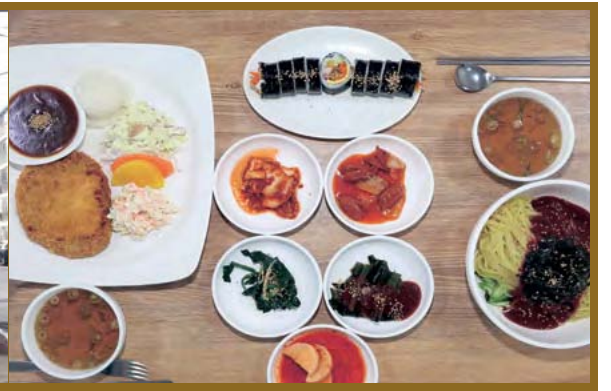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엄마 밥상처럼 푸짐한 돈가스 맛집 대화동 밀앤돈까스

- 대전 대덕구 생산5길 22(대화동 253번지) / 042-624-3337
- 제육볶음 1만4000원, 돈가스·김치찌개·우거지국밥·떡만둣국 7000원
떡볶이·쫄면 6000원, 김밥 3000원
- 영업시간 07:00~20:00(아침식사 가능)



대덕구 대화동 한적한 도로에 자리 잡은 작은 음식점 '밀앤돈까스(대표 최원숙)'.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소박한 분식점인 이곳엔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품은 음식들과 정겨움 그리고 푸근함이 가득하다.

이 집은 대전산업단지 근로자 등 현지인들에게는 꽤 많이 알려진 곳이다. 돈가스, 김밥, 쫄면, 떡볶이 등 소박한 메뉴 구성이지만 맛이 훌륭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을 만큼 '찐맛집'으로 유명하다.

실제, 이 집의 돈가스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튀겨 일명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또, 새콤달콤

양념장을 얹은 쫄면과 학교 앞 분식집에서 맛본 옛날 소스 맛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떡볶이, 우영과 단무지, 햄, 당근, 계란, 어묵 등 통상적인 재료 다 넣고 툭툭말은 김밥 등 먹는 순간 입이 호사를 누린다. 오랜 기간 김말이 등 튀김 재료 도매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10여년전 이곳에 음식점을 열었다는 최원숙 대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인근에 있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들러 싱싱한 식재료를 사고 이내 식당으로 달려와 아침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최 대표는 "3교대 근무가 많은 공단지역이라 아침 식사를 드시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에 부

칠 때도 있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강조했다. 호텔외식조리학을 전공하고 서울 특급호텔에 근무 중이던 아들 한규민씨(27)는 바쁜 어머니를 고된 일상을 돕고자 얼마 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식당 일을 거들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기 전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손맛 또한 좋았던 최 대표의 기쁨은 오로지 자신이 해준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고물가 시대에 3000~7000원이라는 가격에 맛있는 푸짐한 한 상을 대접받을 수 있는 밀앤돈까스에서 오늘 식사 한 끼 어떨까?



깔끔, 담백한 감자탕 맛집 식풍경감자탕 대화점

- 대전 대덕구 동심5길 3(대화동 40-88번지) / 042-627-7288
- 감자탕 2만8000원~3만8000원 / 뼈해장국(특) 9000원
황칠닭곰탕 1만 원 / 소떡불고기 9000원
- 영업시간 06:30~21:00(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추운 날씨엔 역시 국물요리가 최고'라는 한국인의 '공식 입맛 법칙'이 어김없이 적용되는 메뉴로 사계절 인기몰이 중인 맛집이 있다.

30년간 중국요리 전문점을 운영 하다가 약 10년 전 대화동에 감자탕 전문점을 개업했다는 '식풍경감자탕 대화점' 양태관·이명순 부부는 40년 경력 베테랑답게 음식 맛은 '정성'으로 결정된다고 단언했다.

이 집은 매일 아침 돼지 등·목뼈를 깨끗이 씻은 다음 7가지의 약재를 넣은 물에 1차로 삶아내 잡내와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어 다시 한번 더 삶아 진한 사골육수를 내고 고기도 더욱 부드럽게 만든다.

이후 등뼈를 푹 고아 낸 육수에 감칠맛을 더해줄 된장을 풀고 매콤하게 양념한 시래기와 들깻

가루, 감자까지 더해 한 번 더 끓여주면 진하고 깊은 국물로 속을 채워주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양태관 대표는 "특별한 요리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늘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이지요"라고 강조했다.

어느덧 70세에 접어든 양태관 대표는 2년 전쯤부터 아들 성운씨에게 가업을 승계했다. 식풍경 개업 당시부터 직장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부모님의 식당 일을 거들었던 성운씨는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만의 일을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과감히 식당 운영에 뛰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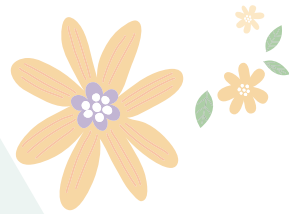
영업 종료 후 뒷정리를 하고 밤 10시에나 퇴근길에 오르는 고된 일과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에 큰 행복감과 함께 도전 의식도 용솟음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황칠닭곰탕'이라는 신메뉴를 개발해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전에 '식풍경'이라는 상호를 사용 음식점은 이곳과 문화동·지족동 등 총 3곳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점은 양 대표의 동서가, 지족점은 대화점에서 동고동락했던 지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메뉴도 대화점과 차별화된 추어탕을 취급하고 있다고.

40년 음식업 외길을 걸어오며 어려운 시절 함께 견뎌준 사람들과 손을 꼭 잡고 정성스런 맛과 넉넉한 인심이 차고 넘치는 음식점을 운영해 나가자는 양태관 대표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이곳 '식풍경'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봉사·기부는 마음을 나누는 행복”

대전로타리클럽 신상교 회장

이웃 회사 (주)동양케미칼 안동수 대표 권유로 클럽 입회
클럽 통한 기부·봉사 실천... 대화동에 회사 직원들과 나눔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베푸는 맞춤형 봉사와 기부 필요”



“단순히 내 생각대로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와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로타리 3680지구 대전로타리클럽 2023~2024년 회장을 맡은 윤슬(주) 신상교(47·사진)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놓은 참된 봉사와 기부의 의미다.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서 초정밀가공 분야 토털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0대 젊은 사업가인 신 회장은 사실 ‘희망나눔 캠페인’ 등 회사로 걸려 오는 ARS를 통해 월 1~2만원 기부하는 정도 일 뿐 봉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회사 지척(咫尺)에 있어 평소 경영 노하우 등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안동수(주)동양케미칼 대표이사의 권유로 봉사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한다. 당시 대전산업단지 경영자협회장을 맡고 있었던 안동수 대표는 “봉사는 상상 이상의 행복감을 가져다준다”라며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에 초대하는 등 ‘봉사의 참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를 계기로 대전로타리클럽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신 회장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속한 대전로타리클럽은 1957년 창립돼 올해로 67주년을 맞는 충청지역 로타리의 시발점(始發點) 역할을 담당한 전통 있는 봉사조직”이라며 “저를 대전로타리클럽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안동수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처음 봉사에 참여할 때는 괜히 겹언쩍고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는 신 회장은 이후 △연탄나눔·난방유 지원 △집수리 지원 △의료봉사 △위탁시설 지원사업 △김장배추 기부 등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봉사가 가져다주는 보람과 행복을 비로소 만끽할 수 있었다고 한다. 회사 경영 등 때론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클럽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는 신 회장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베푸는 것이 참된 봉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신상교 회장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연탄이 빠곡히 들어차는 것, 집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가정은 그 부분이 수리되는 것이 기쁨이겠죠. 그래서 미리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라며 “맞춤형 도움을 드렸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작은 희망과 희열을 느낍니다”라며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 실천 의지를 내비쳤다.



신 회장은 한 연구원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7년 마음이 맞는 친구 두 사람과 각각 30만원씩을 모으는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초정밀가공 분야는 첨단 기술과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가공 분야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자본이 부족해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설립 3년 만에 벤처 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수십 건의 특허등록 및 신기술 인증 획득,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인증 획득 등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기술력을 쌓아 올려 현재의 윤슬(주)를 이뤘다.

신상교 대표의 회사가 있는 대화동 산업단지는 1960~70년대에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근무하던 생기가 넘치는 동네였다. 하지만 제조 산업의 쇠퇴 등으로 현재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적잖이 살고 계신 지역이다.

신 회장은 올해부터 대전로타리클럽 활동과는 별개로 직원들과 함께 대화동 지역에 매년 주기적인 기부 및 봉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큰 금액이나 많은 물품은 아닐지라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여쭙보자 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원봉사는 모두가 마음을 나누는 행복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관·단체는 항상 일손이 필요합니다.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대덕구의회 새해 사자성어 공개 | 대덕구의회는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열고 2024년 갑진년 사자성어로 '이민위본(利民爲本)'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덕구의회, 2024년 첫 임시회 막 올라

1월 29일~2월 5일 제273회 임시회,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 등

대덕구의회가 올해 첫 공식 활동에 나섰다. 구의회는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이달 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 일정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실·국별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일반안건 처리 등이 이뤄졌다.

특히 주요 업무 보고에선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 공유됐다.

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효서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광 의원)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흥 의원) 등 14개 안건이 처리됐다.

김홍태 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집행부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지적해 의회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이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전반기 회기 일정표

제273회 (임시회)	1. 29.(월) ~ 2. 5.(월)	8일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일반안건 처리
제274회 (임시회)	3. 11.(월) ~ 3. 19.(화)	9일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안건 처리 · 현장 방문
제275회 (정례회)	6. 3.(월) ~ 6. 19.(수)	17일	· 일반안건 처리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 · 구정질문

※ 의정 여건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기고



"한마음 맞손에 대덕구민의 숙원 드디어 풀려"



박효서 의원

대덕구 회덕동과 신탄진동에는 ‘주한미군 공여 구역’이 있다. 지금은 없지만 1956년부터 약 40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했다. 그 기간 해당 지역 주민은 주변 지역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며, 더딘 지역 발전과 부족한 교통·생활 인프라에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의 지원 사업’이 추진되며 생활기반시설 보완 등 정주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신탄진 권역 주민의 오랜 바람에도 추진 되지 못한 사업이 있다. 바로 ‘장동(회덕동)-이현(신탄진동) 간 도로 신설’이다. 주민들은 관통로 부재로 장동에서 대청호를 가기 위해 신탄진을 거쳐 대청호수로까지 돌아가야만 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본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국비 4억 원 확보로 설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규사업 불가 원칙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장동-이현 도로 신설에 반대해왔다.

이를 바꾼 건 우리 구를 비롯해 시 관계자, 국회 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온 힘을 모은 덕분이 었다. 구와 시 관계자가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애를 썼다. 지역 국회의원 또한 발 벗고 나서 예산 결산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을 지속 설득했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진 시작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장동(회덕동)과 이현(신탄진동)을 잇는 도로(1.7km) 구축을 목표로, 총 2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우회로 인해 발생하던 소요시간이 약 35분에서 단 3분으로 단축되며,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동·신탄진 지역은 물빛축제 등 다수의 지역 대표 축제와 행사 개최 및 장동 휴양림이 조성돼 있다. 도로 개통으로 대청호·계족산 등 주변 관광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물꼬가 트였지만 추진상에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문제없이 완공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지역 과제와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시-국회의원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지 않은가.

의원발의



박효서 의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 제도 홍보와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활성화 도모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



전석광 의원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 내용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저장강박 행동장애로 의심되는 구민을 위해 세부 지원 내용을 추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보관 조치 및 소요 비용 징수 등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구입 비용 지원 등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김기홍 의원

☑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대덕구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진실·질서·화합의 이념 실천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선진 국민 의식 함양·국가사회 발전 목표

취약계층 생필품·연탄 나눔 등 봉사 및 기부 적극 나서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 생활' 등 범국가적 캠페인 전개

김광남 회장 “올해 더 많은 주민 참여 기회 제공… 많은 관심 부탁”



물질만능주의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깊게 깔린 현대사회에서 가진 것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단체가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회장 김광남) 이다.

이들은 형식적인 걸치레가 아닌 수십 년간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참된 봉사를 실천해 주변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을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국민 운동단체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살기 운동을 전개해 선진 국민 의식 함양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5공화국 시절인 1981년 발족한 '사회정화위원회'가 전신(前身)인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난 1989년 4월 1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정식 창립됐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는 동별로 각각 '동 위원회'가 조직, 운영하는 등 매우 촘촘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덕구협의회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 위한 바르게 살기운동 홍보 캠페인 △기후 위기 인식 홍보 캠페인 △사랑 나눔 봉사 활동 △탄소중립 녹색 생활 나무 심기 △어려운 이웃 김장나누기 △독거노인 돌봄 봉사 등 범국가적 캠페인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와 기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광남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장은 초대 송촌동 위원장을 시작으로 △대덕구협의회 부회장 △산악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간의 임기를 한번 마치고 이번에 연임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대덕구협의회를 위해 헌신하게 됐다.

그야말로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의 산 역사라 할 수 있는 김광남 회장은 “무슨 일이든 꾸준함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걸은 길이 어느덧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변함없는 봉사의 손길을 펼쳐주신 350명의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통해 작게는 가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밝고 명랑한 대덕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덕구협의회는 △기후 위기 인식 홍보 캠페인 △탄소중립 녹색 생활 캠페인 등 △어르신 안전 미끄럼방지대 설치 등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차원의 사업에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그간 잔뜩 움크렸던 기지개를 켜듯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중증장애인 점심식사 보조 활동(1월~5월) △가정의달 맞이 법2동·송촌동 어르신 200분 건강식 대접(5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4월·9월) △추석맞이 취약계층 생필품 나눔 캠페인(9월) △대전IC 인근 바르게 표지석 공원에 연산홍 440주 식재(10월) △사랑의 김장 나눔(11월) △사랑의 연탄 나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024년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서서는 김 회장은 “목상동·석봉 등 2개 동 위원회가 공식으로 있는데 올해는 12개 동 모두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직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홍보해 바르게살기 운동이 대덕구에서 활성화되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르게살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 양보 그리고 포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을 확산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농가 부담 완화’ 벼 영농자재 지원

오는 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대전 대덕구가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 또는 대전과 연접한 세종·충남·충북에서 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벼 재배 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영농자재는 1ha(10,000㎡) 기준으로 거름용 맞춤형 비료 15포(20kg/포), 못자리용 상토 50포(20L/포), 육묘상자 처리약제 15포(1kg/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3월 초에 신청인 별 지원 물량이 확정되며, 농업인은 각 지역농협을 통해 확정된 사업량만큼 구매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비료 등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금융 기관 확대

지역 신협 6곳과 맞손
정기예금·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대덕구가 성실납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대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세자이다.

성실납세자는 정기예금 금리 및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구는 이를 위해 최근 지역 신협 6곳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기존 지역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회덕농협·신탄진농협 이외에 대전대덕, 대전우리, 신탄제일, 신탄진, 한남, 한빛신협 영업점(본·지점) 등에서도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라돈 저감장치 설치

동춘당근린공원 등 3곳… 이달 음용 재개

대덕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라돈(RADON) 저감장치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이다. 구는 라돈의 인체 위해성을 인식, 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라돈 기준치(148Bq/L)를 초과한 △동춘당근린공원 △읍내동 현대아파트 △장동초등학교 등 시설 3곳에 대해 라돈저감장치를 설치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긴급사태, 공습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을 때 생명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마시는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라돈저감장치가 설치된 3곳은 현재 음용이 중지된 상태다.

구는 라돈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 물 기준치에 적합할 경우 이르면 내달 음용을 재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라돈저감장치 설치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마시는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비상급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세균에 대해 분기별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동춘당근린공원 라돈 저감장치 설치 전



▲ 동춘당근린공원 라돈 저감장치 설치 후 모습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대출 지원 ‘대덕뱅크’ 시행

소상공인 300여명 대상 최대 1500만원…
오정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 소상공인 확대 지원

대덕구 소재 3개월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

2024. 1. 17.(수) ~ 소진시 까지

최대 1,500만원

※오정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이자지원(연 3%), 신용보증수수료(연 1.1%)

대전시 하나은행 전 지점

하나은행 (☎632-1111)
대전신용보증재단 (☎380-3805)

대 상

기 간

대 출

지 원

신 청

문 의

대덕구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지난 1월 17일부터 대출 지원 사업 ‘대덕뱅크’를 시행한다.

‘대덕뱅크’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 이자와 연 1.1% 신용보증수수료를 최대 2년 지원한다. 다만, 최근 발생한 오정동 가스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일 제한 조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대전시에 있는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권고대상 '23-'24절기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백신 새롭게 개발된 XBB 1.5 **노바백스**·화이자·모더나
✓ 유행 변이(HK.3, JN.1)에 대하여 중화항체가가 13.5배, 7.7배 상승 ⇒ 효과성이 확인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문의 대덕구 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4, 5487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 빈번한 설 명절,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준비하세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 **신청** : 2024. 2. 13. ~ 3. 4. /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내용** : 지원대상의 동물등록 완료 돌봄(개 고양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 1명당 25만원 이상 최대 20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사용 시 80% 지원)
 - 해당 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료, 펫보험 등



문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042-608-6953)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시 연 중

대상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내용 퇴원 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의료 - 건강관리와 상담 지원
돌봄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식사 - 도시락 등 식사지원
이동 - 외래진료 시 이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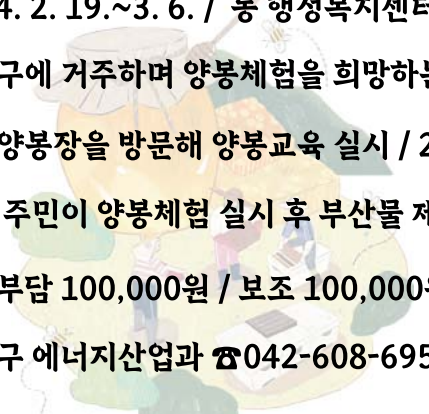
선정기준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로, 시군구청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선정

문의전화 대덕구 생활지원과(☎608-6383)



주민 체험양봉 교육 신청 안내

- 신청** 2024. 2. 19.~3. 6. /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대덕구에 거주하며 양봉체험을 희망하는 주민
- 교육** 체험양봉장을 방문해 양봉교육 실시 / 2회 이상
- 내용** 참여 주민이 양봉체험 실시 후 부산물 제공
- 참가비** 본인부담 100,000원 / 보조 100,000원
- 문의**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042-608-6951



2023년 2월 1일부터 지적측량신청은 관할지역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신청안내



‘22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 지적측량 신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주 소: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12, 3층
 · 전 화: 042-718-4084, 4124
 · 근무시간: 월 ~ 금 09:00~18:00

지사방문이 불편하신 고객은 아래와 같이 비대면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



모바일 앱 랜디-이





바로처리포털
<https://Baro.lx.or.kr>